

## Azabu Collection Overview

In addition to its other holdings, the Honolulu Museum of Art's Robert Allerton Art Library has a unique collection of 15,000 items donated in 1998 by the Azabu Museum of Arts and Crafts.

In 1984, the Azabu Museum of Art was established in Tokyo, Japan as the only museum in the world devoted entirely to *ukiyo-e* paintings, with over 3,000 works. *Ukiyo-e* paintings were done on silk or paper and were created by artists who employed the artistic styles and subject matter of *ukiyo-e* woodblock prints. In 1989, the Azabu Museum of Arts and Crafts opened after it acquired the Azabu Museum collections. The Azabu Museum of Arts and Crafts and the Honolulu Museum of Art (then known as the Academy of Arts)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assistance of the Academy, the Azabu Museum of Arts and Crafts held the exhibition Kabuki through the Theater Prints in Tokyo in 1990.

Following the closing of the Azabu Museum of Arts and Crafts in 1998, that museum donated their library's entire collection of approximately 15,000 volumes to our museum. Because of the Azabu's focus, their library included various *ukiyo-e*-related books, as well as reference material, exhibition catalogues, and Japanese literature and nonfiction, as well as periodicals. Well preserved, some of them date back to the early 1900s. Others are valuable rare books. In 2012, the Robert Allerton Art Library began the process of cataloguing these books and entering the records in the library's [online catalogue](#). Today, over 1,000 books have been catalogued and are now searchable online by the public.

ホノルル美術館ロバート・アラートン美術ライブラリーには、麻布美術館（のちの麻布美術工芸館）より寄贈された 15,000 冊もの書籍が収蔵されています。

世界で唯一の肉筆浮世絵を専門に展示する美術館として、1984年（昭和59年）東京に麻布美術館が開設され、近代初期の風俗画、および菱川師宣以降の浮世絵師達による肉筆浮世絵の掛幅、屏風、絵巻など3千点以上におよぶ美術作品を収集・展示していました。1989年、新たに麻布美術工芸館開館が開館された際、麻布美術館の収蔵品は寄託として引き継がれ、その後は浮世絵の収蔵展示を主流に美術工芸品のあらゆるジャンルを対象に企画展が行われました。ホノルル美術館との交流も深く、1990年には当美術館の協力による「芝居絵に歌舞伎を見る - ホノルル美術館所蔵作品展」が麻布美術工芸館で開催され、浮世絵の里帰り展として注目を集めました。

その後、1998年の麻布美術工芸館の閉鎖に伴い、図書館蔵書のすべてがホノルル美術館に寄贈されました。浮世絵関連書の他、学術・研究書、展覧会図録、随筆集、文学全集、小説、定期刊行物などその所蔵図書資料は多岐にわたります。保存状態は良好で、中には希少価値の高い珍しい本や大正・昭和初期の古書も含まれます。2012年より、それらの蔵書を図書館蔵書検索システムに入力する作業を始め、現在までに1000冊以上の目録検索が可能になりました。

目録検索は[こちら](#)から

## 아자부 컬렉션

로버트 알러톤 미술 도서관은 1998년 아자부 미술공예 박물관으로부터 기증받은 15,000건의 독특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자부 박물관은 1984년 일본 도쿄에 설립되어 3,000점이 넘는 작품들을 소장했으며, 우키요에 회화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미술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키요에 회화는 우키요에 목판 인쇄의 예술적 스타일과 주제 의식에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에 의해 비단이나 종이 위에 그려졌습니다. 1989년, 아자부 미술공예 박물관이 아자부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이어받아 개관하였습니다. 아자부 미술공예 박물관과 호놀룰루 미술관 (구 호놀룰루 미술 아카데미)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1990년 호놀룰루 미술관의 협조로 아자부 미술공예 박물관은 *Kabuki through the Theater Prints*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1998년 아자부 미술공예 박물관의 폐관에 따라 15,000권이 넘는 전체 소장 서적들은 호놀룰루 미술관에 기부되었습니다. 아자부 박물관의 특성에 따라 그 도서관은 다양한 우키요에 관련 서적들과, 참고 자료들, 전시 도록들, 일본 문학과 비소설 서적, 그리고 정기 간행물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잘 보존된 장서들은 1900년대 초반에 출판된 서적들과 희귀 서적들 또한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로버트 알러톤 도서관은 이 서적들을 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1,000권이 넘는 책들이 목록화되어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합니다.